

# 중대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 연수

### 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 포함 전 교육기관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대상 권역별로 4차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의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연수를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주·김제·완주지역을 시작으로 20일 정읍·순창·부안·고창지역, 21일 군산·익산, 22일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운영됐다. 특히 기관(학교) 위험성평가를 현업 업무종사자에서 2025년부터는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안전보

건공단과 안전관리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한 '정기 위험성평가 예시안'을 안내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공기관의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모든 교직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직원의 사무환경, 실험·실습실, 휴게공간까지도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현재까지 도내 교육현장에서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학생·교직원·근로자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2024년

## 청사 화재대피 훈련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2024년 청사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누적으로 도교육청 건물에 정전과 화재 발생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경보 발령 및 화재신고 → 대피 유도 → 대피 후 초기진화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실질 훈련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청사 내 화재 발생 시 직원들의 초기대응 능력을 점검·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훈련은 누적으로 도교육청 건물에 정전과 화재 발생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경보 발령 및 화재신고 → 대피 유도 → 대피 후 초기진화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실질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 시설 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서거석 교육감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는 소방 훈련을 통해 모든 직원과 방문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민원의 날'

### 맞아 나눔행사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민원의 날'을 맞아 고객지원실 방문객들에게 선물 나눔 행사를 가졌다.

'민원의 날'은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로, 매년 11월 24일이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민원인 한 분 한 분을 24시간 섬긴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고객지원실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상조 존중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품과 간식을 제공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김수연 학생

###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

전주대학교 경영학과(학장 김효진) 4학년에 재학중인 김수연 학생이 제61회 세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는 5437명으로 이 중 715명이 최종 합격해 합격률은 13.15%였지만, 김수연 학생은 당당히 최종 합격의 영예를 누렸다. 김수연 학생은 "세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해 무척 기쁘다"며 "학교를 다니며 세무·회계 전공 수업을 통해 기본을 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대 학생 여러분들도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보다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끝까지 실행한다면 뭐든 다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의 산업기술 고도화 전략 논의

## 전주대, 제9회 미래전북포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1일 은누리홀에서 제9회 미래전북포럼(Future Jeonbuk For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급변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속에서 전북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강연은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이 '전북의 실루엣과 only one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전북이 했을 때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전북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only one에 대해 전북연구원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정병업 소장이 '방사선 기술과 산업'이라는 주제로 방사선 관련 최신 산업기술 동향, 혁신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



전주대학교는 지난 21일 은누리홀에서 제9회 미래전북포럼을 개최했다.

어질 수 있는 경제적 성장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나누고 협력의 길을 모색하며, 전북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전북포럼이 더 창조적이

고 혁신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오는 28일 '제10회 미래전북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동물용 암 탐지기'로 기술력 인정받다

### 전북대 송철규 교수팀, CES2025 디지털 헬스부문 혁신상 수상

전북대학교 송철규 교수(전자공학부, 연구부총장 겸 LINC3.0 사업단장)와 이동원 교수(고분자나노공학과) 연구팀이 '동물용 암 탐지기'로 CES2025 디지털 헬스 부문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송 교수팀은 지난해 '실시간 열전 탐지를 위한 생체 영상장치'로 혁신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이는 성과를 거뒀다. 송 교수팀이 개발한 반려동물 암 조기 탐지 장치는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 암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이다. 현재 국내에서 8세 이상 반려견 중 약 50%가 림프종, 유선암 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암 진단은 CT·MRI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조직 검사가 필요해 접근성이 낮고 비용이 높았다.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나노입자



형태의 영상 조영제를 주사기로 투입해 암세포를 고해상도 형광 영상으로 탐지하는 방식으로, 종양 부위에 선택적으로 축적되어 선명하고 정밀한 영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CT·MRI 등의 장비 없이도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탐지할 수 있어 진단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수상은 전북대가 글로벌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성과를 만들어낸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송철규 교수는 "이번 기술은 반려동물 헬스케어 수요를 반영한 혁신적인 장치로, 실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실시간 영상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전북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 덕분에 2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에 발맞춰 이번 기술을 개발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임상 연구와 제품 고도화를 통해 반려동물 암 진단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상작은 2025년 1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 박람회의 유레카 파크(Eureka Park)와 혁신상(Innovation Award) 전시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이중초, 아중 IB PYP 교육과정 발표회

## 프로그램 발표 등 진행

전주이중초등학교(교장 조연순)는 지난 22일 교내 강당에서 '2024 아중 IB PYP 교육과정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는 유치원 및 1~6학년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IB 탐구프로그램 발표, 방과 후 프로그램 공개, 학부모 참여 융합 수업, 학급별 교육과정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학급별로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각 학급이 1년 동안 탐구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학부모와 교사 앞에서 직접 발표를 했다. 학생들은 탐구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깨달음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공유하며, IB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인 비판적 사고와 협력 능력을 선보였다. 방과 후 프로그램 시간에는 학생들이 만든 작품과 탐구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을 전시했다. /장은성 기자

특히 학부모 참여 융합 수업은 자녀의 학습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부모들은 수업에 직접 참여하며 IB 교육과정의 철학과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배움의 장을 만들어갔다. 조연순 교장은 "이번 발표회는 학생들이 그동안 탐구와 학습을 통해 쌓아온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IB 교육과정의 성과를 직접 보여준 값진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이중초등학교는 2024학년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연구학교로서, 도내 초등학교 중 최초로 IB 초등교육 프로그램(PYP) 후보학교 승인 받은 바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수의대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양성사업 결실 맺다

### 야생동물 질병 특성화대학원 참여 연구원들 잇단 성과 심세린 석사과정생·김명수 박사, 질병방제 연구 '우수'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제2기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심세린 석사과정생과 김명수 박사가 국제학회에서 잇단 성과를 거뒀다.



심세린



김명수

또 김명수 박사(지도교수 한재익)는 아시아 수의사회연합회 주최로 최근 열린 제23회 Federation of Asian Veterinary Associations

Congress(FAVA)에서 사립앵무 바이러스 연구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심세린 석사과정생(지도교수 엄재구)은 최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17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ociety of Conservation Medicine(ASCM)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심 석사과정생은 야생 박쥐의 파라믹소바이러스 특성을 분석한 연구 발표를 통해, 특히 한국 박쥐에서 파라믹소바이러스의 분포와 유전자 특성을 연구해 국가 및 종 간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분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과 잠재적인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 감시 체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장은성 기자

김 박사는 사립앵무에서 발생하는 선외확장증바이러스 보균 사테울라바타르에서 열린 제17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ociety of Conservation Medicine(ASCM)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심 석사과정생은 야생 박쥐의 파라믹소바이러스 특성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 박쥐에서 파라믹소바이러스의 분포와 유전자 특성을 연구해 국가 및 종 간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분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과 잠재적인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 감시 체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전력망연구실 학생들이 대한전기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 김영찬 석사졸업생, 이태승·최지원 석사과정생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전력망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최근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분회 2024년 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김영찬



이태승



최지원

이에 따르면 연구실의 김영찬 석사졸업생과 이태승, 최지원 석사과정생이 논문 우수성을 인정받아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김영찬 졸업생은 올해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중 2편에만 수여되는 논문상을 수상해 남다른 의미를 더했다. 김영찬 석사졸업생은 올해 대한전기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고장파급방지 장치 미탈락발전기 발전제약 완화를 위한 전기저장장치 효과분석 및 운영

방안' 논문으로 논문상을 받았다. 해당 연구는 대규모 발전단지의 발전제약을 전기저장장치를 통해 완화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기산업공사의 전기안전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태승 석사과정생은 '국내 계통안정화용 ESS의 재생에너지 수용용량 증대효과 분석'을, 최지원 석사과정생은 'V2G 기반 1차에비려의 계통연계형 모델링 방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친환경자동차학과, 아시아 등과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친환경자동차학과는 지난 22일 (주)아시아, (주)첨경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런 협약을 통해 친환경자동차학과는 성인 재직자들이 친환경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계설비 전반에 걸친 4차 산업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체 연계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친환경자동차학과 강성수 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협업형 지역고등평생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현장 학습 기관 인체의 교육·취업 지원 및 상호협력 연계 과정이 탄생할 것"이라며 "전북지역 성인 재직자들의 성공적인 재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시아 오인섭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당사의 15여 년간의 축적된 메쉬웍스 등 설치용금속재 유통리

전주대학교 친환경자동차학과는 지난 22일 (주)아시아, (주)첨경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자동차학과는 성인 재직자들이 친환경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계설비 전반에 걸친 4차 산업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체 연계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친환경자동차학과 강성수 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협업형 지역고등평생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현장 학습 기관 인체의 교육·취업 지원 및 상호협력 연계 과정이 탄생할 것"이라며 "전북지역 성인 재직자들의 성공적인 재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시아 오인섭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당사의 15여 년간의 축적된 메쉬웍스 등 설치용금속재 유통리